

## 제 5강. 인물 (캐릭터2).

큰형은 지난주에 아버지와 싸우고 아예 집을 나간 모양이다. 하기가 큰형은 평소에도 집에서 거의 살지를 않으니 집을 나갔어도 나갔다는 표시가 안 나긴 하지만, 하여간 이제 큰형은 그나마 들락날락하던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거라 선언하고 집을 나갔다. 엄마와 큰형이 아버지를 상대로 싸우는 이유는 똑같다. 엄마는 왜 큰놈한테 좀 잘 해주지 못하느냐 싸우고 큰형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 해주지 못한다고 싸운다. 이래저래 큰형만 왔다 하면 집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작은형은 듣자 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던 청과물 도매시장 순댓국밥집에서 일하는 여자에하고 드디어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이제 겨우 스물 두 살인 형이 살림을 차렸는데도 엄마,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한술 더 떠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기까지 했다.

- 공선옥 「라일락 피면」

지루해.

학년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고 번호가 바뀌어도, 그 학교가 그 학교고 이 교실이 이 교실 같고 저 얼굴이 그 얼굴 같은.

밀려드는 지루함의 압박. 답답.

내가 있는 곳이 좁디좁은 우물 안이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다 자냐?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식상한 표정들은 무어란 말이지? 이거 이거 교실 분위기가 왜 이래?”

자칭 열린 선생인 담임이 너스레를 떤다. 같은 반이 된 지 한 달 밖에 안됐건만 30년은 된 듯한 교실 분위기. 담임은 아침저녁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겨운데, 수업까지 들어오신다. 가출을 결심한, 한 청소년의 비행 의지마저 잠들게 했다는 선생의 수학 수업 중, 참 재미없는 네모난 건물, 네모난 교실, 반듯반듯 구역을 나눈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중 2분단에 앉은 누군가가 자다 일어나서 말했다.

- 방미진 「영희가 O형을 선택한 이유」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다시 그때가 된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 달라졌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장사꾼?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군인? 뭘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냐.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우연이야. 아니 누군가의 실수지. 내 실수는 아니라고.

나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겉으로 보면 그래.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척도를 속

물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면 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 성석제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Q시 종합터미널은 훈훈했다. 땀이 더 따끔거리고, 시큰한 머리통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아까 표를 끊어둔 고속버스 막차는 한 시간이나 남았다. 바닷가에서 거닐다 보면 막차 시간에 대기도 빠듯하지 싶었는데, 바닷바람이 해도 너무했다. 전후좌우에서 두드려 팼다. 전속력으로 방파제까지 걸어갔다 오는 데만도 죽는 줄 알았다. 나 혼자였다면 종합터미널 근처에서 멀찍이 거무스레한 Q섬에 눈도장만 찍고 돌아섰을 것이다. 혼자라면 아마 녀석도 그랬을 걸? 매점에서 사발면을 사고 뜨거운 물 부어, 녀석과 나는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 오수연 「너와 함께」

크리스마스트리 꼭대기에 플라스틱 은별을 달아놓은 후, 아빠는 내게 소원을 빌라고 말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퀵서비스 배달을 관둔 지 오래고, 루돌프 사슴의 반짝이던 코는 배터리가 방전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빠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고 있었다. 특별한 날 소원을 빌면 50퍼센트는 먹고 들어간단니까. 아빤 콘센트에 꼬마 전구 플러그를 꽂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베란다 앞 유리창에 천천히 붉고 노란 불빛이 맺혔다.

아빤, 왜 모든 걸 확률로 따져? 나는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발톱을 깎다가 통명스레 쏘아붙였다. 그야, 수는 진실하니까. 아빠는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았다. 두 달 전부터 아빤 폴에게 줄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감청색과 흰 털실을 섞어 만든 목도리였다. 아빠는 마치 폴이 앞에 있기라도 한 듯 목도리를 걸어주는 시늉을 했다. 생각만 해도 좋은지 뺨까지 발그스름해졌다.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그냥 하나 사주고 말지. 내 말에 아빠는 기분이 상했는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네가 세상에 쉽게 태어난 줄 알아? 다,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서…….

- 오진원 「굿바이, 메리개리스마스」

내 이름은 이성호. 어느 반에나 한 명은 있는 이름이다. 아무도 내 이름을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듯, 날 특이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공부도 그럭저럭, 친구 관계도 그럭저럭인 나는 평범한 중3이다.

하지만 언젠가 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듯, 언젠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성호만의, 이성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 내 삶은 허물 속에 숨어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윤이 누나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는.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윤이 누나는 큰이모의 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윤이 누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랐다. 가출과 정학, 급기야 자퇴로 마감한 학교 생활, 허황된 성품, 복잡한 남자관계……. 그 중에

서도 주 관심사는 단연 남자 문제였다. 누나를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누나에게 목을 맨다고 했다. 누나 때문에 자살 소동을 벌인 일류대 대학생 얘기는 지금도 화젯거리였다.

- 조은이 「해바 HEBA」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것이다. 선생님이 물었다. 사람의 이는 모두 몇 개일까요? 나는 번쩍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나를 지명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 있게 소리쳤다. 씬아홉 개요! 선생님이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잠깐 정적이 깔리더니, 한두 녀석이 킁킁 웃기 시작하면서 이내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선생님까지 한참 동안이나 깔깔 웃어댔다.

그날에야 비로소 나는 사람의 이빨은 서른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말했다. 이빨이 씬아홉 개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괴물일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빨이 씬아홉 개예요, 하고 소리지르고 싶어서 나는 입이 근질근질했다.

나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괴물이었다. 적어도 담임선생이 보기에는 그랬다.

최인석 「씬아홉 개의 이빨」

로드 무비

앨리스 : 안뇽~ 빔.

빔(벤더) : 하이, 앨리스. 웬일이야, 이렇게 늦게 나타나다니.

앨(리스) : 한 달에 한 번 효녀 심청 되는 날. 병원 갔다 왔지.

빔(벤더) : 오늘은 의사 쌤이 머라셔?

앨 : 맨날 똑같은 멘트.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에.

식사도 잘 하고? 네에. 밤에 잠은 잘 자? 네에.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네에.

약 처방해줄 테니 계속 꼬박꼬박 챙겨 먹어. 네에.

그렇게 구라 치면서 병원 놀이 하고 왔지.

의사 쌤은 로봇 역할, 난 앵무새 역할.

빔 :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따로 없네. 다음 달에 또 예약했어?

앨 : 당근.

빔 : 약도 안 먹으면서……. 병원비 아깝지 않아?

앨 :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걸…….

그마저 안 하면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할지도 몰라.

- 표명희 「널 위해 준비했어」

아버지는 모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가방을 뒤집었다. 모래를 방 한 구석에 쏟아놓았다. 10미터 높이의 다이빙대에 간신히 발끝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낮빛에

공포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푸른 줄무늬 양복의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차례로 벗었다. 흰 팬티와 흰 러닝셔츠, 검색 양말 차림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는 공포를 가까스로 극복한 듯 하품을 했다. 가방을 머리에 베고 누웠다.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아버지는 밤마다 가방을 베고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 명멸하는 아득한 별들의 개수를 세다가 잠이 들었는지도…….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빗자루를 가져와 모래를 쓸었다. 모래가 얇전히 쓸리는가 싶더니 부엌에 일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부지런히 비질을 했지만 모래는 좀처럼 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른여덟 살이었다. 아버지는 서른두 살에 사막으로 떠났다. 6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테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사막을 무사히 건너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백치가 되었다.

--- 김숨 『백치들』

그렇다면 책임을 지려 할 사람은 권위 있는 누구는 아닐 것이다. 선생도 의사도 전문가 어느 누구도 <이것이 그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어떤 경찰도, 경찰 전문의도, 사회 복지자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인간 조건에 대해 연구하는 어떤 아마추어가, 아마도 비정상적인 종자를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실제로 친구들과 길에 서 있는 또는 경찰 구치소에 있는 벤을 보고서 진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자. 그의 호기심은 인정한다…… 그 다음은? 벤은 과학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조각으로 잘라볼 것인가? 그의 곤봉 같은 뼈를, 그 눈을 검사해 보고 왜 그의 말투가 그렇게 거칠고 어색한지를 발견할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 그리고 이제까지 그와 보낸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벤에게는 그녀의 예상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갱단은 여전히 도둑질로 먹고 살 것이고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벤도 잡힐 것이다. 경찰에 잡히면 그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어서 싸우고 고함치고 발길질하고 괴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약으로 마취시킬 것이며 머지않아 죽어가던 그를 그녀가 발견했을 때 모습처럼 수의를 입고 창백하게 축 늘어진 거대한 굼벵이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 도리스 레싱 「다섯째 아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응?”

거기에는 삼면의 벽을 죽 둘러 연결된 기다랑고 큰 폭신한 의자가 있었는데, 우리 옆에 앉은 놈은 맛이 완전히 가서 눈을 번뜩이면서 주절거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저쩌고 산책을 가서 일을 하고 시틀라멘 꽃은 똑똑하게 되었다.” 녀석은 약에 취해서 허공 속을 헤매고 있었지. 나도 남들처럼 그걸 해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지 알고 있었지만, 여러

분, 나는 이때만은 그게 좀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여러분이 그놈의 약을 탄 우유를 마신 후에 거기 누우면, 주변의 모든 일들이 과거사처럼 생각되지.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 탁자, 스테레오, 조명, 계집애들, 사내자식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똑똑하게 보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 부츠나 신발이나 손톱 뭐든지 간에 보게 되면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 같지. 동시에 뭔가가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올려서 마치 고양이 새끼를 쥐고 흔들듯이 흔들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흔들고 또 흔드는 거야. 여러분의 이름이나 몸, 여러분 자신까지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부츠나 손톱이 노랗게 변하고 시간에 따라 점점 더 노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그때 불빛들이 마치 원자폭탄처럼 폭발하기 시작하고 부츠나 손톱, 또는 바짓단에 묻은 먼지 한 점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보다 더 크게 변하지. 그러다 이 모든 게 끝날 때가 여러분이 하날님, 그러니까 신을 막 만나게 되는 순간이지. 그리고 난 다음 주둥이를 오픈려 울면서 제정신을 찾게 되는 것이지. 자, 그건 기분은 좋지만 아주 비겁한 일이지. 신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은 아마 사내자식의 힘과 장점을 다 빨아먹어 버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응?”

- 앤서니 버지스 『시계태엽 오렌지』